“안심하고 맞으세요” 전남대·조선대병원 의료진 백신 접종

지역 병원장들 릴레이 접종 독려 나서…잔여백신은 보건소 직원 등 접종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치료 병원과 요양시설에 이어 전남대학교 병원 등 병·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백신 안전성을 알리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지역 병원장들이 릴레이 접종에도 나섰다.

8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본원 8동 백신 접종실에선 안영근 병원장을 시작으로 소속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병·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접종이 일부 시작되긴 했지만, 지역 대표 의료기관인 전남대·조선대병원이 일반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대병원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소속 의료진 2200여명에 대한 AZ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 AZ 백신은 물론 화이자 백신도 사용된다.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102개 병·의원에서 모두 1만4492명이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병·의원에선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모두 4445명이 접종해 접종률은 30.7%로 집계됐다.

접종을 마친 안 병원장은 “많은 사람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혀 우려할 필요 없다”며 “여러 차례 임상 연구를 통해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안전성이 입증됐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현장에서 접종하고 남은 잔여 백신으로 보건소 직원 등 1차 대응 요원들이 접종을 받기 시작했다. 광주에선 대상자 1651 중 50명이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AZ 백신 접종은 각각 대상자 8901명, 2081명 가운데 90.3%, 85.8%의 접종률을 보인다. 코로나19 치료 병원 의료진이 지난 3일부터 접종한 화이자 백신은 광주에서만 대상자 1144명 중 7.8%인 89명이 접종했다.

전남에서는 1분기 코로나 19 백신 접종 대상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접종을 마친 가운데, 도내 보건의료인 접종 개시에 맞춰 전남지역 병원장들이 릴레이 예방접종을 나서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8일 0시 기준, 1분기 접종 대상자 3만 6736명 가운데 43.6%에 해당하는 1만6039명이 접종을 마쳤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전체 3만5958명 가운데 1만5815명으로 44.0%의 접종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치료기관 의료진이 맞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대상자 778명 가운데 224명(28.8%)이 접종을 받았다.

백신 안전성을 부각하기 위해 8일 전판석 목포기독병원장을 시작으로 9일 양진원 순천한국병원장, 10일 유흥석 고흥제일병원장 등 전남도내 병원장들이 릴레이 예방접종에 나선다.

전판석 목포기독병원장은 첫날 예방접종을 마친 후 “독감 주사를 맞은 느낌과 같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든다”며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8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안영근 병원장이 코로나19 아스트로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의료진 등 2200여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에선 이날 현재 124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됐다. 발열 66건, 알러지 7건, 부종·두통·근육통·오한·메스꺼움 등 기타 51건으로 모두 경증으로 파악됐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김형호 기자 khh@

백신 접종 후 사망 8명 ‘인과성 없음’

사망자 모두 요양병원 입원환자 지병악화 가능성…3명은 검토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11명 중 1차 검토가 끝난 8명은 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3명은 아직 1차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조사 대상 8건은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7일 소아청소년과·내과 등 임상의사,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사망 사례 8건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피해조사반이 살펴본 사망자 8명은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1명, 40대 1명, 50대 4명, 60대 2명이다. 이들 모두 평소 지병(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접종을 받은 뒤 사망까지 이른 시간은 최소 22시간에서 최대 3일 20시간까지 다양했다.

피해조사반 분석 결과 사망자 8명 모두 예방접종을 받은 뒤 급격하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망자들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을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했는지 확인한 결과에서도 중증 반응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진단은 이를 근거로 백신에 이상이 있거나 접종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또 사망자들이 생전에 앓고 있었던 기저질환이 사망에 미쳤을 영향도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해달라”

김영록 지사, 복지부장관 면담…국가 첨단의료단지 지정 협조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고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등 핵심 현안 2건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은 섬 등 의료 취약지가 많고,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의료수요는 높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인력 양성이 어렵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80만여 도민이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을 다니고, 외지로 빠져나가는 의료비만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지역에서 정기적인 의료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하고,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인력과 농·어부증 의료 전문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년 넘게 이어진 200만 도민의 염원이자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하고, 의대 정원에 전남 몫 정원을 배정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화순 백신산업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전남을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천연물 등 치유자원이 풍부하고,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전임상, 임상, 생산, 인증 등 국내 유일의 면역치료 전주기 지원 인프라를 갖춘 첨단 신약개발의 전진기지”라며 “화순 백신산업특구,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국가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등 그동한 꾸준히 확충한 의료·의약 인프라를 기반으로 감염병 및 중증질환 백신·면역치료에 특화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육성해 국가 첨단의료 3각축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첨단의료 3각축 지역은 면역 의료·의약·치유 분야의 전남, 바이오의약 분야의 충북, 합성신약 분야의 대구·경북이다. 전남도는 첨단의료 복합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자체 용역을 진행해 그 해 12월 보건복지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날 면담에서 권덕철 장관은 “의과대학 신설은 정부에서 의정협의체가 다시 재개되는 대로 논의에 포함시켜 잘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면역의료특화단지로서 지역 특성을 살리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때 그시절 ‘입장료 100원 사직공원’

광주시, 옛 전경 담은 기록 사진 홈페이지 공개

1965년 제46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남구 광주공원 입구에 건립한 구동체육관과 그 앞에 서 있는 한복차림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8일 사직공원 등 광주 옛 전경을 담은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 기록관에 보존 중인 사료들로 1970년 사직공원 동물원 내 풀장 공사 전경, 입장권 모형도, 1965년 구동체육관 개관 시기 사진이다. 입장권 모형도에서는 성인 100원, 학생 50원, 어린이 30원 등 입장료가 눈길을 끈다.

성인 입장료는 당시 라면 5봉지, 짜장면 1인분, 시내버스 10회 이용 요금과 같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모든 계층이 과거를 회상하고, 추측할 수 있도록 옛 기록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투자 경기·수도권 20년 노하우
법적보장. 010-3605-5000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통로 5층 승강기 有,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통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답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즙,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답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홈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3평)
금액 71억

(부동산 중개인 사절합니다)

문의 010-6432-5070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소 내용

	1	2
발전소명	보림태양광발전소	우리태양광발전소
신청인	노건배	유남순
용량(kW)	99.645	99.645
위치	나주시 문평면 학동리 202, 204	나주시 문평면 학동리 200, 202
면적	938㎡	1,147.7㎡

2. 의견제출기간 : 2021. 02. 25 ~ 2021. 03. 09.
3. 제출방법 :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여 우편 및 E-mail 제출바랍니다.
- 우 편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119번길 10, 2층 (주)에코 정수정
- E-mail : uhb7898@naver.com

주식회사 에코
대표 정 수 정

정 정

본지 2021년 3월 2일자 게재된 (주)케이엘쏠라텍와 (주)더존일렉스의 분할합병공고중, (주)케이엘쏠라텍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내길253번길 16”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208번길 27(수완동)”으로, “사내이사 강순화”를 “대표이사 조성근”으로, (주)더존일렉스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08번길 27(수완동)”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내길253번길 16”로, “대표이사 조성근”을 “사내이사 강순화”로 정정 공고함.

산행안내

3월14일(일)

▲**광주kj산악회** 3월14일(일) 경북 영양군 일월면&일월산행, 염주체육관 06:30, 동아병원 06:35, 롯데백화점 06:40, 광주역 06:45, 문예후문 06:55, 비엔주차장 07:0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안정권(500605-X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 여문2로 11, 102동 1501호 (문수동, 문수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망 안정권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느단10035호로 신청하여 2021년 2월 2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3월 9일

• **상속인** : 1. 안지윤(781025-XXXXXXX)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14길 29-1, 401호 (복성리, 동신빌라트)
2. 안지희(800104-XXXXXXX) 파주시 후곡로 77, 103동 403호 (금촌동, 금촌풍림아이원아파트)
3. 안지호(821011-XXXXXXX) 구미시 옥계북로 43-52, 205동 1402호 (옥계동, 구미옥계휴먼시아2단지)
• **신고기간** : 2021. 3. 9. ~ 2021. 5. 18.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3. 안지호의 주소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공고

피상속인 망 이양구(700916-1XXXXXX, 2020년 11월 20일 사망,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6-12, 2층)의 법정상속인 1.곽해진 2.이승아 3.이연우는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하고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느단10037호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사건을 신청하여 2021년 3월 4일자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이양구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을 받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실을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한정상속인 : 1.곽해진
상속포기인 : 2.이승아 3.이연우
※ 청구인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윤숙)
채권신고장소 : 광양시 나룻1길 39, 101동 1502호 (광영동, 광양광영사랑으로부영1차 아파트)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